

夢叟 李獻吉의 생애와 학술 계통

최진우*,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Life and Studies of Mongsoo Lee Heon gil

Lee Heon gil (a.k.a. Mongsoo), who was the pioneer of measles treatment in the 18th century, is the 14th generation of the Deokcheongun branch of the Lee family from Jeonju, living from August 25, 1738 (14th year of King Yeongjo) to April 29, 1784 (8th year of King Jeongjo).

Under his teacher Lee Cheol hwan, the eldest grandson of Lee Yik, he learned medicine and studied it deeply. His medical service was most remarkable when measles was prevalent in 1775 (51st year of King Yeongjo) at his age of 38. It seems that he wrote books on measles based on his experiences at that time.

Lee Heon gil's academic background can be inferred from his relation with Lee Cheol hwan and Jeong Yak yong. Associating with Lee Cheol hwan, he established close relationships with many scholars including the Lee family from Yeosu, who were the descendents of Seongho Lee Yik, and through this fellowship he was influenc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Seongho Lee Yik. In addition, he maintained close contact with Jeong Yak yong while treating him several times. As Jeong Yak yong was also in close academic association with scholars in the Seongho School and Lee Yik's pupils, he had a philosophical consensus with Lee Heon gil. These academic backgrounds show that the philosophical flow of the Seongho School from Seongho Lee Yik to Jeong Yak yong also reached Lee Heon gil.

I. 서론

李獻吉(字는 夢叟, 혹은 蒙叟, 1738~1784)은 18세기 麻疹 치료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丁若鏞(1762~1836)도 그의 영향을 받아 『麻科會通』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약용은 직접 저술한 마진전문서 『麻科會通』에 이헌길의 傳을 남겼으며, 역대 의가들을 평가한 「吾見篇·古醫」에서 이헌길을 ‘東國疹家之宗¹⁾’이라고 할 만큼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마진이 두창 등 피부에 전형적인 열성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전염성질환과 함께 瘡疹이라는 병명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것이 17세기 초에 이르러 許浚이 『痘瘡集要』를 저술하고 『東醫寶鑑』 「小兒門·附癩疹」에서 痘瘡과 감별해야 할 증상으로 마진을 언급함으로써 독립적인 질병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及幼方(1749)』, 『廣濟秘笈(1790)』, 『濟衆新編(1799)』에서는 麻疹이 독립된 門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변화는 麻疹이라는 병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李灑(1681~1763)은 『星湖僊說』 「麻疹」에서 “麻疹이라는 병이 옛날에도 있었으나, 크게 유행되기는 顯宗 9년(1668년) 부터였다²⁾.”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 후기 잦은 麻疹의 유행은 麻疹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로 18세기에는 이헌길을 필두로 麻疹에 대한 전문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작은 현재 『夢叟麻疹方』, 『麻疹奇方』, 『麻疹秘方』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정본이라 할 만한 판본이 없고 내용상의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본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 필사본인 『麻疹奇方』과 1912년 崔奎憲이 석판으로 인쇄한 『麻疹秘方』은 『麻科會通』의 원문에 “夢叟曰”이라고 인용된 李獻吉의 이론과 처방만을 따로 모아

1) 정약용, 『麻科會通』 「吾見篇·古醫」

李夢叟全用馬法。而參以萬氏。其臨病活法。非書可傳。況其書皆百忙中口號者。故於前人成法。無所變更。惟蠅蟲一論。多發前未發。亦東國疹家之宗也。

2) 이익, 『星湖僊說』 卷10 「麻疹」, 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마진이라는 병이 옛날에도 있었으나, 크게 유행되기는 현종 9년(1668) 부터였다. 이를 이어 경신년(1680)·임신년(1692)을 거치면서 一紀를 그 기간으로 하여 한 차례씩 크게 유행되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동안에는 전혀 유행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 병은 꼭 申年에만 발생한다고 했다. 다시 14년이 지난 병술년(1706)·정해년(1707)에 크게 유행되었고, 12년이 지난 무술년(1718)·기해년(1719)에 유행되었고, 또 10년이 지난 기유년(1729)·경술(1730)년에 유행되었다. 이 역시 그 기간이 끝나는 동안에는 유행되지 않다가 22년이 지난 임신년(1752)에 또 크게 유행되어 사망자가 무수하였다. 그 사이에 혹 더디기도 빠르기도 하였고, 혹 유행되기도 거르기도 한 것은 아마 오성(五星 금·목·수·화·토 성)의 운행에 遲速·順逆이 있고 또 運氣의 행사에도 강약·완급이 있는 때문인 것 같다.”

놓은 책으로 밝혀졌다³⁾. 『麻科會通』 「抄撮諸家姓氏書目」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乙未新詮』이 원서명으로 여겨지지만 전해지지 않아서 『麻科會通』에 인용된 부분으로부터 원본을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이헌길이라는 인물의 행적에 관한 기록으로는 『麻科會通』 「夢叟傳」이 있는데, 그 동안 「夢叟傳」의 내용 외에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헌길의 생몰연대조차 미상으로 기록된 곳이 많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헌길의 麻疹치법과 그의 醫論을 연구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이헌길에 대한 사적과 족보기록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麻科會通』 「夢叟傳」, 全州李氏 족보를 비롯한 여러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헌길의 가계와 생애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특히 이헌길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例軒 李嘉煥, 그리고 후세에 이헌길이 알려지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어 준 정약용과 관련된 기록들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의학자로서 이헌길의 학술사상의 저변을 이루는 학문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세 사람 사이의 학문적 교류 혹은 사승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이헌길의 家系

이헌길의 字는 夢叟, 혹은 蒙叟이며, 본관은 完山⁴⁾(全州)이다. 定宗의 10男인 德泉君 厚生이 그의 선조로서 덕천군의 14대손이다. 아버지 李基仁과 어머니 淸州 韓氏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李儼의 첫째 아들인 李基煥에게 出系하였다. 증조부 李翼年은 진사로 1689년(숙종 15) 增廣試 丙科로 급제, 嘉善大夫 司憲府 持平을 지내고, 海州와 晋州의 목사로도 보냈으며, 조부인 李儼은 進士試에 합격한 인물이다. 養父인 李基煥은 관직에 오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親父인 李基仁은 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⁵⁾. 증조부대만 해도 높은 벼슬에 오른 인물이 많았으나, 이헌길 前後代에서는 관직에 오른 기록이 드물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헌길 때에 이르러 다소 가세가 쇠락한 것으로 보인다⁶⁾. 덕천군의 자손은 공신으로서 이름을 드높인 李準(1545~1624), 영의정을 지낸 李景奭(1595~1671)과 같은 인물을 배출했고, 이헌길과 같은 시대에 실학자이자 고증학자로서 활약했던 李肯翊(1736~1806) 역시 같은 덕천군의 후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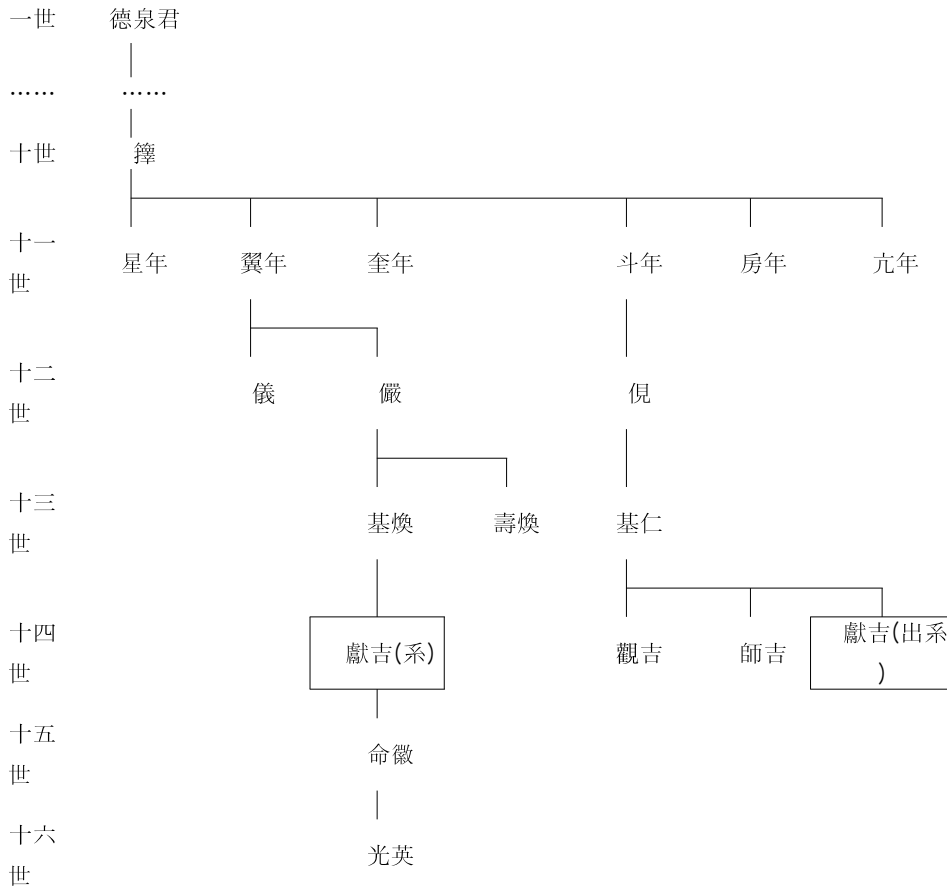
3) 안상우, 고의서산책 193, 『麻疹奇方』, 민족의학신문 455호

4) 필사본 『麻疹奇方』(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에 “完山 李獻吉 夢叟甫著”라고 적혀 있어서, ‘完山’이 그의 본관임을 알 수 있다. ‘完山’은 ‘全州’의 옛 이름이다.

5) 이상의 내용은 全州李氏德泉君派族譜(全州李氏德泉君派譜 卷之一, 全州李氏德泉君派宗會 編, 2003)를 근거로 하였다.

6) 이이화는 “과격파 소론으로 기울어져 그가 태어날 때 쯤에는 家勢가 다소 쇠락해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인물한국사, 한길사, 1990, 180쪽.)

이헌길에 관해 全州李氏 德泉君派 族譜를 바탕으로 계보도를 구성해 보았다.



<표 1> 夢叟 李獻吉의 계보도

2. 이헌길의 생애

이헌길은 1738년(英祖 14년, 戊午) 8월 25일에 태어나 1784년(正祖 8년, 甲辰) 4월 29일 47세의 나이로卒하였다⁷⁾. 그의 외모는 광대뼈가 튀어 나온 코주부⁸⁾로 그려지고 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었는데 성품이 너그럽고 대범하였다고 한다.⁹⁾

7) 全州李氏德泉君派譜 卷之一, 全州李氏德泉君派宗會 編, 2003.

8)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其爲人臞顙而鬚鼻.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는데¹⁰⁾, 忠淸道 禮山郡 德山面 長川里에서 활동하던 例軒 李嘉煥(1722~1779) 아래에서 수학한 것이 학문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철환을 비롯한 그의 친족들 중에는 대단한 장서가들이 많았고 이철환 역시 西學과 奇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¹¹⁾. 따라서 이헌길은 그의 아래에서 수학하면서 다방면의 책을 보았고, 그러던 중 痘疹方을 보고는 홀로 潛心하여 연구하게 되었는데¹²⁾ 이는 후일 麻疹 치료에 있어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한편 그는 일찍이 白湖 尹鏞(1617~1680)를 흠모¹³⁾하였는데, 윤희는 당시의 보수적이었던 주자학이 가진 한계를 본격적으로 비판하여 異端으로 몰렸던 인물이다. 西學에 관심이 많았던 이철환과 윤희의 성향 아래에 있었던 만큼 舊習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치법을 찾는데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헌길이 가장 큰 활약을 보인 것은 1775년(英祖 51년, 乙未) 즉 그가 38세 되던 해 한양에 紅疹이 유행하였을 때이다. 실록에서도 을미년에 일어난 홍진에 대한 기사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피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英祖 51년(1775) 7월 19일(甲子) :

영의정 韓翼謨가 癘祭를 設行하기를 청하였는데, 당시 서울과 지방에서 紅疹이 熾盛하여서 夭死하는 우환이 많았기 때문이었다¹⁵⁾.

英祖 51년(1775) 7월 30일(乙亥) :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한익모가 禁御¹⁶⁾의 上 番軍이 紅疹에 걸린 사람이 많아서 사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아뢰니, 임금이 番드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하였다¹⁷⁾.

9)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喜譚論恒笑。…… 蒙叟性坦率

10)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蒙叟少聰明強記。

11) 김영진, 예헌 이철환의 생애와 『象山三昧』, 민족문화사연구, 2005, 116쪽.

12)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從長川李嘉煥先生游。博覽羣書。旣而見痘疹方。獨自潛心求索。

13)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於前人特慕尹鏞。嘗曰白湖成德之靜菴。靜菴未成德之白湖。

14) 안상우, 고의서산책 193, 『麻疹奇方』, 민족의학신문 455호.

15) 국역조선왕조실록 『英祖實錄』, 민족문화추진회.
甲子…… 領議政韓翼謨請設行癘祭, 時京外紅疹熾盛, 多夭札之患矣。

16) 禁衛營과 御營廳을 말함.

乙未年の 麻疹으로 인한 피해와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은 『麻科會通』 「蒙叟傳」에서 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을미년 봄에 일이 있어 한양에 이르렀는데 마침 麻疹이 크게 일어나 夭折하는 백성이 많았다. …… 막 성 밖으로 나왔을 때에 관을 메거나 삼태기를 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잠간 사이에 1백여 명이나 되었다¹⁸⁾.

마침 이현길은 喪中이었기 때문에 선뜻 치료를 행하지 못했으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禮法에 구애되어 모른 채한다는 것은 不仁하다고 여기고 비법을 시술하였다. 그는 이미 麻疹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마디만 들으면 그 증상을 헤아려 바로 처방을 주었는데, 모두 즉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¹⁹⁾. 그 외에도 두 가지 일화²⁰⁾가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麻疹 치료가 얼마나 효험이 있었는 지를 알 수 있다. 『麻科會通』 「抄撮諸家姓氏書目」에서 이현길의 저서로 밝힌 『乙未新詮』이라는 서명도 을미년에 펼쳐진 그의 활약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의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불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자 시골의 선비들이 다투어 배껴서 마치 六經처럼 믿게 되었는데, 비록 의술에 어두운 사람이라도 그대로만 하면 효험이 있었다²¹⁾. 이러한 사실에서 이현길의 마진 치료에 관한 저작이 본인의 저작물 외에도 구술로 받아 적어진 필사본으로 전해져 왔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3. 이철환과 학술사상적 배경

17) 국역조선왕조실록 『英祖實錄』, 민족문화추진회.

乙亥, 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領議政韓翼謩, 以禁御上番軍多邁紅疹, 不無札瘥仰陳, 上命停番。

18)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乾隆乙未春。有事至漢陽。適麻疹大起。民多夭札。……方出郊。見肩背背藁裡過者。俄頃以百數。

19)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蒙叟意欲救。時服喪不可。……吾有術可救。爲禮法拘。懷之去不仁也。……然蒙叟於疹。既耳順。接數語。已逆揣其證形。隨授一方。謝之使去。亦無不立效者。蒙叟時出門適他家。家男婦簇擁後先。屯如籬以去。所至黃埃蔽天。人皆望而知李蒙叟來也。

20) 『麻科會通』 「蒙叟傳」에는 이현길의 악한 무리에 의해 갖혔다가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를 구출하여 다시 치료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와 砒霜을 사용하여 위중했던 한 환자를 치료한 일화가 같이 실려 있다.

21)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既而蒙叟不自堪。乃口號治疹諸法。令人按行。於是僻鄉窮士。爭相傳寫。信如六經。雖嘗於醫者。但如其言。亦罔不效。

이헌길은 이철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기 때문에²²⁾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從祖인 星湖 李瀼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철환은 박학다식했던 아버지 李廣休(1693~1761)의 영향으로 西學과 奇에 관심이 많고 다재다능 했다²³⁾. 특히 이철환을 비롯한 이익의 후손들은 경기도 안산을 世居地로 삼아서 학문적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헌길은 이철환을 從遊하면서 이익의 子姪들인 驪州李氏 일가들과 직접적인 교유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이들이 남긴 『劄社編』이라는 詩會集에는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劄社編』은 1754년(英祖 30년, 甲戌)과 1755년(英祖 31년, 乙亥)에 여주이씨 일가들을 비롯하여 그들과 교유하던 문인들이, 이철환이 머물던 충청도 예산군 덕산면 장천리의 濯泉莊이라는 섬에서 함께 詩會를 열었던 내용을 담은 책이다²⁴⁾. 詩會에 참여한 사람은 李廣休, 李秉休, 李嘉煥, 李昌煥, 李森煥, 李匡煥, 李玄煥, 李景煥, 李英煥, 李亨煥, 李載德 등의 여주 이씨 일가와 姜世晃, 李獻吉이다²⁵⁾. 이때가 이헌길이 17세 되던 해이므로 이미 그 이전부터 이철환의 아래에서 수학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劄社編』에는 이헌길의 詩²⁶⁾도 다섯 수가 실려 있어서 문학적 면에서도 재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한편을 아래에 옮겨 보았다.

술이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有酒且莫喜
술이 없다고 근심하지 말게나.	無酒不須愁
어찌 자신을 外物과 관계하라?	何關身外物
豪興은 절로 유연할 뿐이네 ²⁷⁾ .	豪興自悠悠

『劄社編』에 실린 시들은 다양한 시체와 시 형식의 과격적인 실험성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참신한 정신을 노출하고 있어, 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발하면서도 정해진

22)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從長川李嘉煥先生游。

23) 김영진, 위의 책, 117~121쪽.
김영진은 같은 책 122쪽에서 이철환의 특징을 “常과 例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奇를 보이며, 儒家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다만 義理之學뿐 아니라 物名 등에 대한 小學도 강조하였고, 스스로 ‘三敎主人’이라 표방했듯 유, 불, 도에 두루 박식, 포용적 자세를 가졌다.”고 평하였다.

24) 박용만, 18세기 안산과 여주이씨의 문학활동-『劄社編』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25집, 2000, 296쪽.

25) 박용만, 위의 책, 297쪽.

26) 『劄社編』에 등장하는 ‘이헌길’에 대하여 박용만(위의 책)은 몽수 이헌길로 보고 있으며, 김영진(위의 책)은 이철환의 또 다른 자가 獻吉로 동일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7) 박용만, 위의 책 303쪽 번역 인용.
박용만은 이헌길의 시에 대하여 “시인이 추구하는 참다운 意趣는 心趣를 드러내는 詩趣일 뿐이다. 그것은 마음이 外物에 구애되지 않는 곧 不拘의 정신세계에서 가능하였다. ‘어찌 자신을 外物과 관계하라? 豪興은 절로 유연할 뿐이네’라는 표현은 不拘의 정신이 自然之性を 깨달은 뒤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들에 구애 받지 않는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²⁸⁾.

한편 이철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李東允의 『樸素村話』에 보인다. 이 책에서는 이철환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일화를 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병에 대해 묻는 이가 있으면 침약으로 답하니 번번이 효과가 있었다(人有問病者, 命以針藥, 輒效.) ……29)”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이철환이 의학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안산의 여주이씨 집안에는 의술에 뛰어난 인물이 많아서 소남 심능숙이 이 집안의 의술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³⁰⁾. 이처럼 이철환을 비롯한 그의 일가는 다양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인 지식도 함께 갖추어 儒醫³¹⁾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스승인 이철환이 의학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이현길 이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성호 이익의 성향을 살펴보면, 그는 서학을 비롯한 중국의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星湖僿說類選』의 「西國醫」를 통해 서양의학을 소개하고 있고, 『星湖僿說』 「鄒若望」에서는 아담 샬로 생각되는 오약망이라는 서양 의사를 언급하는 등 서양의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의 실사구시적 학풍은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학풍이 이철환과 정약용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정약용과 의학전승

이현길의 연구에 있어 정약용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현길이라는 인물이 후세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정약용이 『麻科會通』 「序」와 「蒙叟傳」을 통해 이현길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麻科會通』을 통해 이현길의 麻疹 이론과 처방들이 인용됨으로써 일부나마 그의 의학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麻科會通』 「序」에서 “근세에 李蒙叟란 이가 있었다. 그 사람은 뜻이 뛰어났으나 공명을 이루지 못하여 사람을 살리려 하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麻疹에 관한 책을 홀로 탐구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를 살렸으니,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내가 이미 李蒙叟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할 만한 일이 없었다³²⁾.”고 하여 어렸을 적 이현길의 치료로 살아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28) 박용만, 위의 책, 313-314쪽.

29) 김영진, 위의 책, 121쪽에서 『樸素村話』 원문과 번역 재인용.

30) 김영진, 위의 책, 122쪽.

31) 儒醫는 유교적 사상의 기초 위에서 의학의 이치를 연구하여 이를 민중 구료에 이용한 사람들을 말한다. (김남일, 韓國 醫家の 정체성에 대하여, 제7회 한국역사학 학술대회 자료집, 2006, 78, 81쪽) 이러한 의미에서 이철환과 이현길도 儒醫로 볼 수 있다.

32) 정약용, 『麻科會通』 序

近世有李蒙叟。其人志卓犖不成名。欲活人不能。取麻疹書獨自探蹟。活嬰稚以萬數。而不佞其一也。不佞既繇李蒙叟得活。意欲酬無可爲。

있다. 실제로 정약용은 1768년(英祖 44년, 戊子) 7세 되던 해에 천연두³³⁾를 앓은 기록이 있는데³⁴⁾ 이 때 이헌길이 치료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이헌길은 31세 되던 해인데, 이미 痘瘡이나 麻疹의 치료에 일가를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정약용은 1776년에 병이 들어 고향으로 내려가서 「田廬臥病」라는 시를 남겼다³⁵⁾.

당초에 남은 책을 끝내렸더니
한이로세 질병이 몸을 감았네.
누런 나뭇잎 속에 문을 닫고서
푸른 소나무 앞에서 약을 달이네.
산란한 머리 손질 남을 빌리고
이뤄진 시 입으로 전할 뿐이네.
서쪽으로 가는 길 일어나 보니
눈바람이 찬 하늘 휘몰아치네³⁶⁾.

이 시에는 “당시에 이헌길이 구해준 약을 먹고 병을 앓은 지 30일 만에 나왔는데, 11월이었다³⁷⁾.”라는 주가 달려 있다. 이헌길이 정약용의 고향에까지 찾아가서 직접 치료를 해 주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정약용의 집안과 친분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 이전부터 정약용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정약용은 일찍부터 이익을 존경하여 서울에 올라온 뒤 이익의 子姪들 및 직계문인들과 교유하였는데³⁸⁾, 「西巖講學記³⁹⁾」라는 글에서도 『剡社編』의 시회에도 참여하

33) 『麻科會通』 「序」에서는 麻疹을 앓았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정약용의 후손인 정규영이 정리한 다산 정약용 연보에서는 천연두라고 하여 두창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34) 다산 정약용 연보, 고전국역총서 경세유표, 민족문화추진회.

35)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시율 및 잡문의 연대고증을 중심으로-, 혜안, 2004, 31~32쪽.

36) 고전국역총서 다산시문집 제1권, 「田廬臥病」번역, 민족문화추진회.
始爲殘書至 / 翻嗟一病纏 / 閉門黃葉裏 / 煮藥碧松前 / 髮亂從人理 / 詩成只口傳 / 起看西去路 / 風雪滿寒天

37)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권, 민족문화추진회.
時餌李獻吉藥。得病三旬而愈。仲冬也。

38) 특히 학문이 높았던, 이가환, 이벽, 이승훈, 권철신 등과 같은 성호학파의 대표적인 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교류해 나갔는데, 이가환은 이철환과 사촌 관계이다.

39) 정약용이 금정(충남 홍성)으로 작천되어 가 있을 때 이익의 종손 李森煥을 모시고 동학들과 함께 강학

었던 李森煥과의 친분이 보인다. 직접적으로 이헌길과 교류하였던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驪州 李氏 일가라는 공통된 인맥을 두고 있었다는 점은 이헌길이 정약용을 몇 번씩이나 치료해 줄 수 있었던 배경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학술교류라기 보다는 몸소 경험하여 체득한 의학의 전습 혹은 사숙의 관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산의 아들인 西山 丁學淵(1801~1863, 후에 學詳으로 개명)도 역시 의학 분야에서 남다른 재주를 보였는데, 프랑스 선교사에게 西醫術을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 즉 서구의학의 학습은 특히 이익의 『星湖僮說類選』 「西國醫」에서 비롯된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정약용의 의학사상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⁴⁰⁾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서양의술이 아니더라도 당대 청국으로부터 도입된 최신의학설과 전염병에 대한 치료법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난치질환에 대한 실증적 치료법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사변적인 학문성향에서 탈피하여 실천적인 학문적 기풍을 나타나는데 있어서 의학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분야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들 부자의 의학적 관심과 열정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었다. 다산이 장기에 유배된 지 몇 달 만에 아들로부터 醫書(본초서 포함) 수십 권과 약초 한 상자를 부쳐왔다. 謫所에는 서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책만을 볼 수밖에 없었고, 병이 들었을 때도 결국 이 약으로 치료하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는 이 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村病或治』⁴¹⁾라는 의서를 저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학연은 1850년 풍부한 본초학 지식을 활용하여 『詩名多識』를 편찬하였고 『種畜會通』, 『丁氏醫書』와 같은 의서를 저술하였다.⁴²⁾ 특히 그는 다산의 유배생활이 기약 없이 길어짐에 따라 가계를 위한 생업의 방편으로 의원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던 듯,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호구지책을 위한 의업을 경계하고 나무란 글이 보인다.⁴³⁾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아들 학연 역시 주변에서 의원으로 여길 만큼 의학에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인 계열의 실학적 기풍 속에서 의학을 연구하고 실제 임상치료도 마다하지 않는 실천적 의학자로서 동일 계통선상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이헌길의 의학적 업적을 조명하고 마진을 비롯한 의학 이론과 치료법을 연

을 했을 때의 감회를 적은 글이다. 여기에는 李森煥의 동생인 李鳴煥도 참여하고 있다.

40) 서봉덕, 醫藥으로 본 丁若鏞의 醫學思想,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53쪽

41) 고전국역총서 다산시문집 제13권 村病或治序, 민족문화추진회, 1982.

42) 유희영, 신민교, 맹웅재, 한국의약인명사전, 1991.

43) 아들에게 학연에게 내려주는 교훈(試學淵家誡) 세 번째 글, 의원 행세를 그만두지 않는다면(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1991.)

구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그에 관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헌길의 가계와 생애 및 학술 사상에 대한 배경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헌길은 전주이씨 덕천군파 14대손으로 1738년(英祖 14년, 戊午) 8월 25일에 태어나 1784년(正祖 8년, 甲辰) 4월 29일에卒하였다. 그는 젊어서부터 예헌 이철환을 스승으로 모시며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특히 痘疹方을 읽게 되면서 스스로 깊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던 백호 윤희를 존경하였고, 西學에 관심이 많았던 이철환의 아래에서 수학한 만큼 舊習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치법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이헌길은 이철환을 從遊하면서 비슷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주이씨 일가와 친밀히 교류하였는데 이러한 흔적은 『剡社編』이라는 詩會集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성호 이익의 후손이거나 혹은 문인인 이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이익이라는 대학자의 실학 사상이 이헌길에도 맞닿아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헌길은 38세가 되던 1775년(英祖 51년, 乙未)에 한양에서 麻疹이 크게 유행하였을 때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는데, 당시에 이미 麻疹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하는 방법을 구술하여 치료하게도 하였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 이헌길 본인의 저작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본들이 전해져 왔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헌길은 31세가 되던 해에 정약용이 痘瘡을 앓고 있을 때 치료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정약용이 성장과정을 통해 병을 앓고 있었을 때 약을 구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편 정약용 역시 성호학파의 문인이나 이익의 子姪들과 깊은 학문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헌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 당대의 손꼽히는 지식인이었던 정약용이 『麻科會通』에서 이헌길의 傳을 지을 정도로 그를 기리며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어렸을 적 자신의 두창을 치료하여 목숨을 구해줬다는 표면적인 계기가 아니라도 성호 이익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사상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상호간의 학술사상적 영향성과 사승관계를 규명해 보면 성호 이익 - 예헌 이철환 - 몽수 이헌길 - 다산 정약용 - 유산 정학연으로 이어지는 학술적 계보를 그려볼 수 있다.

주제어: 이헌길, 마진, 이철환, 정약용, 의학인물, 을미신전

참 고 문 헌

- 국역조선왕조실록 『英祖實錄』,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 김영진, 예헌 이철환의 생애와 『象山三昧』, 민족문화사연구, 2005.
『剡社編』, 한국한문학회연구 제25집, 2000.
- 박석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1991.
- 서봉덕, 醫齋으로 본 丁若鏞의 醫學思想,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 안상우, 고의서산책 193, 『麻疹奇方』, 민족의학신문 455호
- 유희영, 신민교, 맹웅재. 한국의약인명사전, 의성당, 1991.
- 이익, 고전국역총서 『星湖僿說』, 민족문화추진회.
- 이이화, 인물한국사, 한길사, 1990.
- 全州李氏德泉君派譜, 全州李氏德泉君派宗會, 2003.
- 정약용, 다산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82.
- 정약용, 여유당전서 『麻科會通』, 민족문화추진회.
-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다산 철학의 근대성 탐구, 서광사, 2001.
-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한국한의학연구원(<http://www.jisik.kiom.re.kr/>).